

“만남이 필요한 순간 강진만으로 오세요”

내일부터 내달 2일까지 17일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자연친화형 갈대축제장...강진읍내 오감통서 음악여행도



우리 삶에 만남이 필요한 순간, 강진으로 떠나자.

강진군이 오는 10월27일부터 11월12일까지 17일간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연다.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갈대물결 사이를 거닐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형 감성축제로 가을 여행자들의 힘터로 손색이 없다.

1천131종에 이르는 남해안 최대 생태서식지로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강진만은 그동안 아껴둔 천혜의 자연공간이자 관광지이다. 이를 여행객들과 전국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행사들은 방문객과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힐링과 고품격 감성으로 운영한다. 강진읍내 오감통에서는 역시 17일간의 역동적인 음악여행이 펼쳐진다.

행사는 27일 오전 갈대 바람을 따라서 만남이란 테마로 갈대숲을 걸으며 개막식을 대신한다. 기획행사로는 강진만 생태탐방로 걸기를 통해 매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배전망대, 상하수도사업소, 목리대교, 큰고니 조형물 코스를 돈다.

이와함께 강진만 쉼터 사랑의 소원달기, '강진만갈대' 오행시 짓기, 가족과 우정, 웨딩, 추억을 테마로

한 갈대밭 예쁜 사진 콘테스트가 진행된다.

체험놀이행사로에는 강진지명 600주년 희망과 함께 소원 연날리기, 희망과 함께 소원 풍등 날리기, 강진만 갈대 미로정원, 갈대공예체험, 종이 꽃 만들기 체험, 어린이와 함께 가을 소풍, 닥트체험을 마련했다.

공연행사는 강진만 갈대숲 음악여행, 음악여행 프로포잔란 이름으로 매일 두차례 생태탐방로 작은 무대에서 열린다. 이와함께 최성수와 함께하는 특별한 '동행'은 10월31일 오후 6시 오감통 야외무대에서, 가

을밤의 낭만 재즈여행은 11월4일, 장필순(조동희)과 함께하는 포크 음악여행은 11월11일, 문화가 있는 날 강진만 노을빛 누리축제는 11월1일 열린다.

부대행사로 라디오를 들으며 걷는 음악여행, 강진읍 거리 음악회, 라디오강진 특집방송 공간으로 보는 나이롱극장, 강진만 갈대숲 만남의 무대 활성화 마케팅, 가을꽃 전시, 두발로 그린 자연여행 일정이 마련돼 있다.

이와함께 강진만 홍보관 운영, 남도산책 요리경연대회, 강진시장 오감통 가을 음악여행 강진시장 문화예술융합시장과 중앙로 행사, 청자 전시 및 판매 프로그램이 있다.

강진군은 축제 분위기를 더욱 돋우고 편의를 위해 축제장 인근 주차장에 포토존과 꽃밭을 조성하고 사피니아가 핀 화분을 충분히 준비했다. 축제장 가는 길은 꽃으로 장식하고 주차장과 음수시설을 마련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그동안 아껴뒀던 천혜의 관광명소가 바로 강진만이다. 국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연경관과 생태체험공간, 역사문화자원이 어우러져 있어 올 가을 전국 관광객들은 강진만에 완전히 반하고 매료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진=최재영 기자



일년에 한번, 미황사 괘불 부처님과 만남 오는 28일 해남 미황사 괘불제와 음악회 열려

해남 평갈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에는 높이 12m, 폭 5m의 대형 불화인 괘불탱을 모시고 있다. 일년에 한번 탕화를 공개하는 괘불제가 오는 28일 미황사에서 열린다.

스님과 마을 청년들이 입에 입막음전을 불고 괘불을 마당에 모시는 괘불이운으로 시작되는 행사는 평화를 발원하는 고불문과 헌향한다. 제물을 올리는 만불공양, 대홍사 보신 큰스님의 법어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만불공양은 참성한 대중들이 쌀과 콩 같은 농산물은 물론 차와 꽃, 책, 사진 등 각자 1년간 떠올린 결실을 올리는 시간으로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온 미황사와 주민들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순서이기도 하다. 오후에 열리는 음악회에는 가

수 나무의 사회로 선경스님의 화청과 남성 6인조 민속악연주단체의 국악비리, 평화의나무 시민합창단, 미황사군고단 등이 공연하며 소원의 등불을 밝히는 민등공양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괘불은 법회를 야외에서 거행할 때 밖에 내거는 불그림으로 미황사 괘불탱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대항불화이다. 영조3년(1792) 제작됐으며 보물 1342호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10년 일본 큐슈바다칸에 30일 간 토박전에 초대되기도 했으며, 2014년 서울에서 열린 괘불현상모사작품 전시회에서는 14일동안 1만명의 관람객이 찾기도 했다.

평갈마을 주민들에게는 괘불을 모시는 해는 풍년이 들고 한번 참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며 세 번 참배하면 극락세계로 태어난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강진쌀 구매 고객에 감사 서한문 발송

타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햅쌀 구매 가능 안내

강진군이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강진 쌀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감사 서한문과 강진쌀 구매 안내문을 발송했다.

강진군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최우선에 두고 쌀과 농수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객의 사랑과 성원에 더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철저한 생육관리, 거저 없는 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상 강진산 농수특산물을 사랑해 주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강진쌀판매참여업체와 협의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햅쌀(백미, 현미, 현미찰쌀, 찰쌀, 보리쌀 등)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택배비도 군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업인들과 공직자 모두는 전국에서 가장 맛 좋은 쌀을 고객님의 식탁에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진 쌀과 농수특산물을 적극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강진쌀 구매 전용전화(080-434-2070), 홈페이지(www.gangjinsal.co.kr)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쌀 판매업체에서도 직접 주문을 받고 있다.

강진=최재영 기자

영암군 국립종자원 전남 제2정선센터 착공

처리능력 2000톤 규모 벼정선시설 2019년 건립

영암군이 미래발전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산업육성 사업'의 하나인 국립종자원 벼정선 제2정선센터가 지난 10일 착공에 들어갔다.

벼 정선시설은 채종포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정부 보급종자를 불순물 제거 후 농가에 보급하는 시설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서 국비 20여억원을 투입 영암군군서면 도갑리 840번지 일대에 공장용, 청사용, 관리사동 등 건축면적 6,855㎡, 정선처리 능력 2천톤 규모의 벼정선 제2정선센터를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민선6기 최대 역점사업인 생명산업의 일환으로 국립종자원 벼정선시설 유치로 추진해왔으며, '15년 6월 유치 확정 후 부지매입, 기획재정부 설계 심의, 조달청 시공업체 계약을 통해 10월 10일 착공하였으며 '19년 3월 정선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쌀 주산지인 전남 지역은 고품질 벼 종자 수요가 높으나 정선시설이 부족해 현재 종자 공급률이 47%로 전국 평균인 58%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19년 영암 벼정선센터가 완공되면 전남지역의 고품질 벼 보급종 공급률을 7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입맛과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신종개발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2천톤의 우량 벼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영암군에서는 2016년부터 벼 보급종 채종포 3개단지 90ha, 맥류종자 2개단지 45ha에 시범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벼·맥류 채종포 계약재배를 6개단지 250ha, 2019년에는 60ha까지 채종포 계약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암=강원훈 기자

목포항구축제, 스마트폰으로도 즐기세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목포항구축제가 모바일과 접목돼 운영된다.

올해 축제는 관람객이 축제장을 두루두루 방문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

종이에 도장을 찍는 기존 스탬프 투어 방식과는 달리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된다. 스탬프투어 참여자는 ▲전통과시 ▲근대과시 ▲오트마리나 ▲삼학수로 ▲삼학도 중앙공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등 7개소를 방문해 각 장소에 비치된 QR 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스탬프를

얻을 수 있고 5개 이상 모으면 축제 안내소에서 기념품을 지급받게 된다.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람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축제스탬프'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행사 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올해 목포항구축제는 '오채일원' 풍어파시걸놀이를 시작으로 과거 추억이 가득한 선창 길을 재현한 '파시로드', 가을철 수산물을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는 '어생그랜드 세일' 경매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을철 관광객을 맞이한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앙 010-3365-6200	송하 010-8620-1925	임동 010-2656-4543	
학운 010-4166-1810	양산 010-2646-3205	오치 010-7532-3313	
광천 010-6612-8599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동운 018-611-7751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용봉 010-4601-2080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혁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